

4대강·SSM·FTA·파병 이어 검찰수사까지...

# 정국 냉각... 예산국회 '시계제로'

## 이번주부터 심사 착수

그렇지 않아도 협로가 예상했던 예산국회에 검찰의 여야 국회의원의 사무실 11곳을 압수수색 여파까지 겹쳐지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당초 4대강 사업과 복지 예산 편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의견 차가 심해 난항은 예고돼 있었다. 여기에 검찰의 정치권 압박은 위발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급속히 얼어붙은 정국에서 여야 간 대화를 통한 난제 해결을 기대하

지만 난망하기 때문이다. 7일 현재 한나라당은 309조6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친서민·복지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4대강 예산이라며 9조6000억원 중 30% 안팎을 대거 삭감해 복지·교육·일자리 등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 1조원 편성을 요구

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을 이명박 정부가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가장 우선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편성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어찌됐건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올해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정기국

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완화, 유류법과 상생법의 처리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SSM법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내주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유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유류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유류법 직권상정을 강력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SSM 규제법은 결국 여야 간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점이 밀려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응책 논의하는 민주당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목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의원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최인기, 최규식, 유선호 의원이 참석, 당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기정 발언·대포폰에 물힌 민생 법안

### 민주당 지역 의원들 대정부질문 기대 이하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지난 5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예초 대정부질문에서 일자리, 서민복지 등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검증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첫날인 1일부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 관련설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정치적 소송물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나라당은 다음날부터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망나니 같은 발언"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동원된 점을 들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대외 공세를 나섰다. 이처럼 여야 공방이 달아오르면서 올해 대정부질문은 정책 질의가 실종됐다는 파문도 비판도 받고 있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강기정 발언'을, 민주당은 대포폰 문제를 그리로

각각 상대 당 패러기에 몰두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정부질문 기간 내내 검찰의 동시다발적 수사가 진행되고, 여기에 다수의 정치인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정가가 술렁였던 것도 의원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특히, 대정부 질의에 나선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기대 이하라

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지역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수준의 평이한 질의로 일관, 정부의 잘못된 점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대정부 질의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남지역 모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질의로 김황식 총리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동료 의원들의 편지를 사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를 했으나 정부가 고개를 숙일만한 심도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는 품위나 깊이에서 기대 이하였다"며 "이는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의원, 사무감사 준비 뜨겁다

### 상임위원 워크숍 개최·자료 공유 등 협력

### 집행부 자료 독장 제출 비협조... 미찰 우려

광주시의원들이 제6회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일 있는 감사위원회를 위해 각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의 허술한 자료 제출과 독장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비협조에 대해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키로 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마찰도 우려된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원들은 각 상임위원별로 지난 5일과 6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각 의원별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

는 등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의원 개리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했다. 감사내용이 중복될 경우 시간 낭비와 함께 현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의원들은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목표를 명확히 선택하고, 이를 의원들끼리 자료와 통계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감사에 대한 힘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2개 팀으로 나눠 공동 대응하는 등 '팀워크'를 통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남(민주·서구 1) 행정자치위원장은 "첫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의원들의 의욕이 넘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지적도 지적이지만, 대

안 제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6회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데다 초선의원들이 대다수인만큼 감사의 방향과 초점 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해 효과적인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자료 제출에 대해 집행부가 허술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독장 제출을 하면서 의욕이 충만한 시의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고, 이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보현(민주·서구 2) 시의원은 "집행부의 제출 자료가 업무현황 수준을 넘지 못하는 허술한 자료가 대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독장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8일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비협조에 대한 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김황식 총리 '국회 데뷔' 성공 평가

### 대정부질문서 폭넓은 식견·소신 보여줘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마무리한 결과, 국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소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하게 통과한 이후 친서민, 소통 행보를 보이면서 34년에 걸친 법조계 생활,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의 딱딱한 이미지 탈피에 주목한데 이어 대정부질문에도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것이다.

김 총리가 대정부질문에 무난하게 대응하면서 각 부처 장관이나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 "김 총리가 조리있게 대응을 잘 잘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부처 장관들 사이에서는

김 총리가 현안에 대해 잘 대응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답변 순서가 와도 걱정이 안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임재민 총리실장은 7일 "국회에 서 아주 다양한 질문이 나왔지만 김 총리가 순발력있게 대응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 총리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이어 내주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연 말을 앞두고 어렵게 생활하는 소외계층을 찾는 등 취임 이후 주력해 온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위한 행보를 계속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北 국방위 제1부위원장

## 조명록 사망

북한 조명록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6일 오전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공동명의로 부고를 발표하고 "조명록 동지가 장기간 심장병으로 2010년 11월6일 10시30분 82살을 일기로 예석하게도 서거했다"고 밝혔다.

공군 출신으로 6·25전쟁 때 비행사로 참전하기도 했던 조명록은 공군사령관을 거쳐 1995년 10월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됐으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 제1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사실상 김 위원장에 이은 북한 권부 내 2인자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 손해사정사

## 大 개강 11월6일(土)

시험예정 : 2011년 4월 24일(1차)

- 보험계약법(土) - PM 2~8시
- 자동차보험이론(日) - PM 2~8시

### 직업상담사 개강 12월 1일

## 새롬행정고시학원

전대후문, 영진빌딩 5층 ☎ 268-8111~2

##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 전대점 268-8111

# 공인중개사

###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 개강 11월 8일

주간반 야간반

###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 60명

합격 을원하신다면 한 수강료, 집 가짜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사구형일) 361-8111 전대점 (전대형일) 268-8111

## 조선이공대학

2010년 유망성적학과

# 프랜차이즈 서비스창업교

### 우리과 특징 5가지

1. 창업실패의 85%는 1년 이하의 준비기간
2. 2년 간의 실무적인 창업준비로 100% 사업성공
3.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점장,대표 특강
4. 창업스쿨, 알짜상권분석, 커피바리스타 등 실무중심 수업
5. 월수익 1000만원 이상 업소의 성공요인 분석

### 졸업후 직원 > 매니저 > 점장 > 창업까지

학과카페: NAVER 카페 bxbx

### 재학중 5가지 자격증취득 (100%)

외식산업관리사 서비스경영관리사 커피바리스타 유통경영관리사 고객서비스수료증

입학문의 학과실 (062) 230-8410 cafe.naver.com/bxbx

##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